

우리나라에 스키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925년 朝鮮鐵道局이 이 땅에 창립하면서 일본인 종업원들이 일본에서 소지해온 스키가 등장하면서 發芽期를 맞았던 것이다. 이들은 1926년에 元山 신풍리 스키장을 최초로 개발했고 뒤이어 “朝鮮스키聯盟”이 발족함에 따라 약 10년 동안 溫井里(江原道), 三防(江原道), 퇴조(咸南), 성진(咸北), 명천(咸北), 개덕산 SLOPE(선수전용), 朱乙 관모봉 SLOPE(주로 산악스키장), 나남(咸北) 등 각지에 스키장을 개발했다. 이 스키장 개발은 주로 元山, 함흥, 성진 등 철도사무소에 소속한 각 스키구락부가 이 땅에서 최초로 주동이 되었으며 그 무렵 서울(京城) 사람들도 스키를 시작하였다. 내가 처음 스키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 1938년 外金剛 溫井里 스키장과 三防(약수터로 더욱 유명) 스키장에서 기본기를 익혔다. 당시 조선철도국(현교통부)에서는 매주말 야간스키 열차를 두차량 객차뒤에 연결하고 경성역을 떠났다. 그때 객차는 의자가 딱딱한 나무로만 만들어 졌었다. 객차 중간위치에 철물로 된 구식(당시는 신식) 석탄난로가 놓여있고 그 옆에 있는 마셋크탄(조개탄)으로 승객(스키어)들이 불을 때며 낭만의 밤을 즐기며 뜬눈으로 북쪽 설원으로 달렸다. 그곳 스키장에는 많은 눈-평균 2미터이상-이 쌓여 있고 外金剛 溫井里 스키장 萬龍閣호텔 현 관밖 담에는 이 곳을 찾은 스키어들의 스키와 POLE이 멋지게 보였다. 당시는 며칠씩 방치해 두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아침을 먹고 스키장으로 떠날 때, 나는 밀감을 가지고 나가 쪽쪽 빨아 올라간 울창한



任大淳

(前 대한스키협회 부회장·
현 참피온스키·스쿠버클럽고문)

진나무 숲을 지나며 밀감을 눈속에 파묻고 개러더(Gelände : 스키 연습장으로 원래는 토지를 뜻함) 스키장으로 가서 점심시간도 잊고 수십번씩 산을 오르내리며 기본기를 익혔다. 그 당시는 LIFT가 없었다. 한번 내려오면 땀을 뻘뻘 흘리며 스키를 신은 채 정상을 향해 옆으로 「눈」을 다지며 올라갔다. 올라갈 때는 스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썰(SEAL : 스키의 후진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海豹의 모피를 말하는데 해표의 털은 길고 강해 그털의 결이 한쪽으로 몰려있어 스키바닥의 활주면에 쓰면 전진은 되고 후진은 안됨)을 부착하고 올라간다. 정상에서 내려올 때면 일단 어느 지점에 정지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두려움없이 정확한 동작으로 유연하게 내려온다. 물론 중간에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방향을 바꿔 안전하게 활강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깊게 방심하지 않고 내려온다. 한눈을 팔거나 정신을 차리지 않고 활강하다가 곧 넘어지고, 때로는 다리나 팔이 부러지고 크게 부상을 당한다. 최근 뉴스로는 최고시속이 208km이니 얼마나 빠른 스피드인지 짐작할 만하다. 1주일이 지나면서부터 혼자서 자유롭게 활강할 수 있게된다. 과연 스키는 스릴과 낭만의 스포츠다. 돌아오면서 아침에 눈속에 넣고 갔던 밀감을 꺼내들고 돌아와 난로가에 둘러앉아 땀땀하게 언 밀감을 먹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겨울밤에 먹는 냉면맛에 비할 바 없다. 북쪽에 있는 스키장 부근에는 대개 온천장이 함께 있다. 물론 외국스키장도 거의 다 그렇다. 하루의 스키를 즐긴 다음 온천장 탕속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맛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요새 흔하디 흔한 스키는 돈많이 드는 스포츠다 라고들 말하고, 혹자는 부르조아들이나 즐기는 운동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외국에서 보면 청바지에 보통 쉐타를 입고 털장갑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웃 일본에서는 남녀학생들이 작업복차림 또는 여관이나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하다 시간을 내어 에프롱을 한채 스키를 즐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스키가 겨울철 스포츠의 왕자인 것은 틀림 없나보다. 교황 바오르2세가 지금도 스키를 즐기고 있고, 레이건 미대통령이나 카터, 포드 등 전임 대통령도 스키 애호가이다. 이란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황실스키장까지 설치하고, 모든 황족이나 국민들이 스키를 즐기며, 체위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이란 황실스키



장에는 세계 최장의 LIFT가 있다.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北歐 같은 나라에는 헬리콥터가 정상으로 S-KIER를 실어나르고 있다. 북구 스칸디나비아 같은데서는 전국민이 스키를 즐긴다. 학생들은 통학할 때도 스키로 하며, 주부나 노동자도 물론 스키를 이용해 시장도 가고 공장에 출근한다. 의사도 스키로 왕진을 간다. 주말이면 온가족이 뉘색을 매고, 노르딕스키를 즐긴다(노르딕이란 보통스키보다 폭이 좁고 길이가 더 길며 스키화가 운동화와 비슷하다. 노르딕은 먼 산길을 꼬불꼬불 따라 가며 산을 넘고, 설경을 따라 수십km씩 달린다). 참으로 즐거운 맛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언제나 스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눈달인 산장의 모닥불이 생각나고, 훨훨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빙 둘러앉아, 사랑을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던 때가 생각난다. 스키에는 알파인(ALPINE)스키와 노르딕(NORDIC)스키가 있다. 알파인스키는 우리가 보통 하는 스키다. 노르딕은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들과 산을 따라 장거리를 달리는 스키다. 점프용 스키는 폭이 아주 넓고, 밑에 흡이 파져있다. 스키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 점프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설이 없어서 경기종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을 두 번이나 치르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86아세안 게임, 88올림픽 주최국으로 국내에 점프장이 한 곳이라도 있기를 스키애호가로서 희망한다.

일본에서 국민학교 아이들도 점프를 하고 있고, 포탈점프대도 있다. 그리고 산악스키가 있다. 산악스키는 1830년 MÜCHEN, 그 다음해

Wein에 산악스키클럽이 발족하여 처음에는 목장등에서 쓰였으나 1894년에는 최초로 3,000m급 스키등반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유명한 三浦雄一郎이 EVEREST에서 스키로 활강하여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스키를 겸한 북알프스 등산스키가 대유행이다. 이 스키는 길이가 짧고 폭이넓어 등산화에도 맞는 BINDING이 달려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키인구의 저변확대로 많은 스키어들이 있다. 스키운동은 결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전전 스포츠로서 온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스포츠이다.

이제 양질의 국산 스키용구도 생산되고 있어(스키북, 스키화, 설안경, 스키장갑등) 도움이 되고 있다. 스키장도 天磨山 스키장(이곳은 하절에도 섬머스키를 할 수 있다), 龍平스키장, 龍仁스키장, 진부령스키장, 大關嶺스키장(과거에는 이곳에서 많이들 스키를 했다)등 여러 곳이 있다. 처음 스키를 시작하는 사람은 스키장RENTAL에서 스키를 빌려서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처음부터 고가인 유명상표 스키를 사서 신고 배우면 양쪽다리가 제대로 행동을 못해 EDGE에 걸려 스키가 베껴지고 상한다. 그리고 꼭 정식으로 익혀 잘 타

는 사람에게 기본기를 지도 받도록 해야한다(스키장에는 지도요원이 있다). 그리고 설령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쉽게 기본기를 익힌 사람이라도 정상에서 활강할 때 반응을 부리면 꼭 부상하기 마련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특히 뇌를 상하게 되는 위험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올바른 지도로 정확하게 익힌 기술로 스키를 즐길때만 최고의 맛을 찾을 수 있다. 나도 그 덕에 標高 2,300m 일본 북알프스 東立山에서 활강을 했다. 나는 청소년시절 스키를 배우며, 스키에서 인생철학을 배웠다. 올바르게, 그리고 신중하게 익힌 기본기를 이용하여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멋지게 활강하듯, 내 인생행로에도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고 신실하게 목표를 세워 두려움 없이 용기있게 밀고 나가는 버릇이 회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벌써 대관령과 설악산에 많은 눈이 내렸다. 머지않아 스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젊음과 낭만을 즐길 것이다. 산장의 벽난로에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요들송과 산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내 머리를 스친다. ■